가정내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 지원 방안 탐색*

Policy Study on Parents Support for Character Education within Family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이 현 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수 진 미 정**

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at Seoul National Univ.

Research Professor : Hyunah Lee

Child Dept. & Family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Meejung Chin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s of family and parents as primary environments for character educ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xamines surrounding micro and macro environments in a bioecological model, and explores parent support methods for restoring character education in family. For this study, we had interviews with 54 parents(44 mothers & 10 fathers). Through the interviews we found difficulties of character education in family and analyzed them in children and teenagers, parents, school, and social-cultural dimensions based on the bioecological model. On the basis of the parents' perception for these difficulties, we proposed how to support the roles of family and parents for recovering character education in family. The policy methods were proposed in family, school, and society dimen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evidence base for making the parent support policy.

▲주제어(Key Words) :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 인간생태학모델(bioecological model), 가정-학교-사회(family-school-society), 부모의 역할 지원(parents support)

I. 서론

최근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지나친 학업성취 중심의 교육이나 학업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인성교육의 쇠

퇴가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경쟁을 통한 입시위주의 학력 신장에만 몰두한 불균형적인 교육의 결과는 여러 부정적 지표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느끼는 행복 수준은 23개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15~24세)들의 44.9%만이 삶이 행복하다고 응답하여, 핀란드(81.6%), 미국(78.3%), 일본(50.3%) 등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6, Society at a Glance).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350-20110028).

** Corresponding author: Meejung Chin,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 +82-2-880-1454, E-mail: mchin@snu.ac.kr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의 역할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고, 기초적인 생활습관과 규범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장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정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브론펜브레너의 인간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으로서 가정과 미시적, 거시적 사회체계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일차적인 환경으로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둘러싼 미시적, 거시적 환경으로서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즉,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해 가정과 부모가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가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가정내 부모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우리사회의 문화가 바뀔 때 가능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내 인성교육 회복을 위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 지원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인간생태학적 모델

Bronfenbrenner(1979)는 인간발달 과정의 맥락을 강조하며, 개인의 환경이 러시아 인형 세트처럼 각각의 구조가 그 다음의 구조 안에 꼭 맞아 들어가는 한 세트의 구조라고 묘사했다. 또한 개인의 발달에 따라 환경이 개인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미시, 중간, 외부, 거시체계의 차별화된 네 가지 수준의 환경체계를 제시하였다. 가족은 개인의 발달이 일어나는 주요한 미시체계이고, 가족과 보육시설, 학교와 같이 개인의 발달을 위한 다른 환경간의 관계는 중간체계라 하며,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망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외부체계라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시, 중간, 외부체계는 거시체계 안에 들어가는데, 이 거시체계는 광범위한 이념적 가치, 규범 그리고 그 문화의 인간발달의 생태학을 위한 ‘청사진’을 구성하는 특정문화의 제도적 유형들을 말한다. 즉 미시, 중간, 외부체계에 해당하는 가정, 학교, 기업, 사회 등의 행동양식은 거시체계의 가치 및 규범의 영향을 받아 이를 기준 지표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다른 체계인 시(時)체계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어떤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와 연속성이 그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써 인생의 전이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같은 인간생태학의 ‘생태학적 전이’ 개념으로 생태학적 환경에 있는 개인의 역할, 장면, 혹은 역할과 장면 모두가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지위 역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과정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난다.

이와 같은 Bronfenbrenner의 인간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환경은 미시체계(가정, 학교, 또래), 중간체계(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외체계(지역공동체, 대중매체, 사회기관 등) 거시체계(문화적 요인, 정치체계, 경제체계 등) 시간체계(생애발달, 역사적 시점)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인간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가정내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체계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건강성 뿐 아니라 이러한 미시체계를 둘러싼 거시체계의 건강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으로서 가정과 미시적, 거시적 사회체계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 지원 방안을 인간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가정내 인성교육을 둘러싼 가정과 사회의 문제

가족의 변화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며,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의 가족생활만족도 인식,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등에 반영되어 나타난다(Ok, et al., 2012).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족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35.8%로, 중국 51.4%, 일본 39.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2011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2a)에 의하면, 청소년이 최근 1년간 부모님과 활동의 1순위는 ‘저녁식사’, 2순위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순으로 나타났고, 부모님과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아버지와는 30분 미만이 48.9%로 가장 많고, 어머니와는 1시간미만이 51.7%로 보고되었다.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특히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가족과 식사를 ‘일주일에 서너번’ 하는 경우가 58.7%로 OECD 평균인 78.3%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Yonsei University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0). 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부모를 자신의 고민을 나누는 대화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0)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생의 46.3%가 자신의 고민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적고, 부모님과 대화로 고민

을 나누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가족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미국 대통령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언급할 정도로 유명하다(Mun-hwailbo, 2009).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 확실히 학력효과가 대단히 높은 사회이며 학력의 도구적 가치보다는 상징적 가치가 높은 '상징적 학력사회'이다(Lee, 2004).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입신출세 시키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교육이 가장 확실하고 배반당하지 않는 투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녀교육에 임한다.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한다(Bae & Lee, 1988). 실제 우리나라 부모들은 학생의 부모로서의 역할이 부모역할의 전부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자녀의 효도 역시 '학업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Park, 2012). 이처럼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을 중심으로 부모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부모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학부모문화가 가정내 인성교육의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삶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배우면서 성장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충분히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능력보다는 학력이 우선시 되는 경쟁구조,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의 만연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의식과 자기정체성을 찾아가기 보다는 어른들의 문화 속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Ok et al., 2012). 특히 TV와 인터넷 등 유해한 미디어 환경에의 노출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미디어 콘텐츠는

청소년에게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의 표본을 제시하는 이른바 '사회화'의 기능을 하는데, 이는 사회화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즉, 유해미디어가 제공하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청소년들의 성적욕구 및 공격성향을 높이고 범죄수법을 모방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인성함양을 위해 미디어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중독률이 성인(6.8%)에 비해 청소년(10.4%)이나 유아동(7.9%)이 더 높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등 미디어 규제가 더욱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과 사회의 문제는 가정내 인성교육의 환경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며, 이하에서는 실제 학부모 인터뷰를 통해 가정, 학교, 사회 차원에서 느끼는 가정교육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가정내 인성교육 회복을 위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 지원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학부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부모 면접조사는 2012년 1월부터 7월에 걸쳐 어머니 44명과 아버지 10명 등 총 54명에 대해 실시하였다(<Table 1> 참조). 미취학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고루 면접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 강북권, 강남권, 인천시, 경기도 용인시, 분당구 등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하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고려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ees

Period	Name	Age	Address	Age of Children
1st	A-1	42	GwanAk-gu, Seoul	Male(16), Male(13)
	A-2	41	GwanAk-gu, Seoul	Female(15), Male(7)
	A-3	42	GwanAk-gu, Seoul	Male(16), Female(13)
	A-4	43	GwanAk-gu, Seoul	Female(14), Male(11)
	A-5	42	GwanAk-gu, Seoul	Male(14), Male(8)
	A-6	38	GwanAk-gu, Seoul	Male(13), Female(7)
2nd	B-1	48	Yunsu-gu, Incheon	Female(15,13)
	B-2	42	Namdong-gu, Incheon	Female(14,10)
	B-3	42	Yunsu-gu, Incheon	Female(15,13), Male(11)
	B-4	49	Yunsu-gu, Incheon	Female(17), Male (15)
3rd	C-1	38	Yongin-si, Kyungi-do	Female(13, 10, 8), Male(2)
	C-2	41	Yongin-si Kyungi-do	Female(14), Female(12)
	C-3	45	Yongin-si Kyungi-do	Male(15), Male(11)

Table 1. continued

Period	Name	Age	Address	Age of Children
3rd	C-4	39	Yungtong-gu, Suwon	Male(9)
	C-5	48	Yongin-si, Kyunggi-do	Female(17), Female(14)
	C-6	41	Yongin-si, Kyunggi-do	Female(14,12,11)
4th	D-1	44	Dobong-gu, Seoul	Female(18), Male(15)
	D-2	45	Dobong-gu, Seoul	Female(20), Female(17)
	D-3	41	Dongducheon, Kyunggi	Female(19), Male(10)
	D-4	49	Dobong-gu, Seoul	Male(20, 17)
	D-5	48	Dobong-gu, Seoul	Female(19), Male(17)
	D-6	49	Nowon-gu, Seoul	Female(17), Male(15)
	D-7	43	Dobong-gu, Seoul	Male(19), Female(17)
5th	E-1	49	Yongin-si Kyungi-do	Female(21,17)
	E-2	42	Sungnam, Kyunggi-do	Female(18, 17)
	E-3	45	Yongin-si Kyungi-do	Male(18), Female(17)
	E-4	47	Nowon-gu, Seoul	Male(18), Female(14)
	E-5	46	Yongin-si Kyungi-do	Male(14), Female(13)
	E-6	45	Songpa-gu, Seoul	Male(20), Female(17)
6th	F-1	33	Gangnam-gu, Seoul	Male(4, 2)
	F-2	35	Gangnam-gu, Seoul	Female(5), Male(3)
	F-3	43	Gangnam-gu, Seoul	Male(4)
	F-4	37	Gangnam-gu, Seoul	Female(4)
	F-5	36	Seocho-gu, Seoul	Male(5, 2)
7th	G-1	33	Yongin-si Kyungi-do	Female(7, 1)
	G-2	35	Yongin-si Kyungi-do	Female(3)
	G-3	43	Yongin-si Kyungi-do	Female(10), Male(7)
8th	H-1	46	Sungnam-si, Kyunggi-do	Male(17), Male(14)
	H-2	45	Sungnam-si, Kyunggi-do	Male(18), Female(10)
	H-3	46	Sungnam-si, Kyunggi-do	Female(19), Male(15)
	H-4	46	Songpa-gu, Seoul	Female(23,13), Male(20)
	H-5	46	Sungnam-si, Kyunggi-do	Male(14), Male(13)
9th	I-1	46	Dobong-gu, Seoul	Male(24, 22, 14)
	I-2	43	Dobong-gu, Seoul	Female(18, 16), Male(14)
	I-3	39	Dobong-gu, Seoul	Male(18), Female(13)
	I-4	48	Dobong-gu, Seoul	Female(24,17), Male(12)
	I-5	41	Dobong-gu, Seoul	Male(15,13)
	I-6	42	Dobong-gu, Seoul	Male(15, 13)
10th	J-1	38	Yongin-si Kyungi-do	Female(15,10)
	J-2	44	Yongin-si Kyungi-do	Female(20, 16), Male(10)
	J-3	41	Yongin-si Kyungi-do	Male(16,13)
	J-4	44	Yongin-si Kyungi-do	Female(20, 15), Male(10)
11th	K-1	49	Goyang-si, Kyunggi-do	Male(21), Female(18)
	K-2	45	Mapo-gu, Seoul	Female(18)

학부모 면접조사는 각 집단별로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면접은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이 진행하였고, 연구보조원이 참석하여 내용을 필사하였다. 면접 장소는 참여자의 집, 지역사회 내 도서관, 사무실,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학교 등 참여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였다.

학부모 면접조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선택하여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학교에서의 자녀 적응,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되 집단 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여 문서로 자료화하였다. 전사된 면접 자료를 통해 주요 중심 주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 및 가정의 역할 정립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IV. 가정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학부모 인식

부모역할을 한다는 것은 복잡한 예술과 같은 것이다. 교육자 스텐슨은 “성공적인 부모는 자기 자신을 사람을 키우는 어른으로 여기며, 그들의 자녀들을 만들어지는 성인으로 본다”고 하였다(Lickona, 2004). 이는 부모역할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부모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녀가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모역할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학부모인터뷰를 통해서도 가정의 부모역할이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부모 인터뷰 결과, 부모가 가정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 역할이 쉽지 않고,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본 장에서는 가정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

식을 인간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청소년, 부모, 학교, 사회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Table 2> 참조).

먼저 아동청소년 차원의 문제로는 빈곤한 청소년 놀이문화, 욕설사용이 보편화된 또래문화, 발달단계상 특성(중학교 시기 절정 반항기) 등이 발견되었고, 부모차원의 문제로는 무서운 엄마들 문화와 불안감, 가정 내 아버지 부재, 자녀에 대한 그릇된 기대, 청소년자녀에 대한 이해 부재 등이 있다. 학교교육차원의 문제로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 학교와의 소통 부재, 교사의 무관심 등이 있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TV 미디어 환경의 유해성, 군중심리, 장시간근로문화로 인한 부모의 늦은 귀가 등이 발견되었다

1. 아동청소년차원의 문제

아동청소년차원의 문제로 드러난 것은 빈곤한 청소년 놀이문화, 욕설이 보편화된 또래문화, 발달단계상 특성(중학교 시기 : 절정의 반항기) 등이 발견되었다. 청소년들의 욕설문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욕설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다. 욕을 안하면 짜질이 되고(C-6), 다른 아이들이 깔볼까봐 먼저 쓰고(A-4), 욕을 안하면 애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서(D-6) 어쩔 수 없이 욕을 사용하고 있었다. 욕설이 난무하는 또래문화와 욕설을 금지하는 가정교육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심한 욕을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 중생환(E-4)을 하기도 한다. 또래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에 대한 대처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저희 아이도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다른건 몰라도 욕을 하는 것이 싫다고 했어요. ‘엄마, 내가 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짜질이

Table 2. Barriers of Character Education in Family by Dimensions

Dimensions	Associated factors
Children/teenag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healthy play culture of children ■ common use of bad language in peer group ■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Par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thers' culture and anxiety ■ indifference and isolation of fathers in family ■ over-expectation for children's education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balanced education prioritizing the entrance-exam ■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 indifference of teachers on students
Social-cultu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rmful effects of TV and Media ■ insensitivity to diversity ■ insufficient family time due to long-hours work

가 되.' 친구가 욕을 한 것보다 더 센 강도로 해 주어야 날 건드리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C-6)

저희 오빠가 교사예요. 집에서 이게 나오면 우리 오빠는 사정없이 애를 때요. 근데 애가 이제 아빠 있을 때는 말을 못하고 엄마 있을 때 지내들끼리 튀어 나온거야. 형제니까.. 그러면서 엄마 좀 봐주면 안돼? 내가 집에서 최대한 조심할게.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얘기가 안되고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해. 재수없다 그런데..(E-4)

청소년 놀이문화가 빈곤한 것도 인성교육의 장애요인중 하나이다. 양적인 시간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청소년들의 여가는 빈곤하다. 대부분의 여가를 인터넷게임이나 TV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 놀이문화가 빈곤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학부모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로 PC방을 이용하여 인터넷게임을 하는 것(E-3)이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의 전부가 해도 과언이 아니다. PC방에 취미가 없는 청소년들은 놀거리가 전무한 상태(I-4)이다.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매체가 무료한 청소년의 여가시간(I-2)을 채워주고 있다. 여자아이들 경우, 짧은 치마에 구두 신고 어른 흉내 내면서 영화 보러가는 정도의 조그만 일탈(E-2, E-4)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다.

애들이 밖에 나가봐야 놀게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이상 아이들. 초등학교는 그래도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 위에 애들은 놀이문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PC방은 애들 성향에 따라 가는 애들도 있는데 우리 애들은 안가요(I-4)

시험 끝나고 나면 애들끼리.. 어른들이 하는 흉내를 내고 싶은거야.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구두신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거지. 나갔다가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거 나 대학교 1학년 때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오면, 화장실 가서 막.. 애가 지금 고2인데 애가 지금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E-4)

중학교시기가 반항의 절정기인데 이는 발달 단계적 특성으로 이해해야한다. 뇌발달의 부조화로 인지와 정서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신체적 발달 등으로 어른도 아닌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김봉년, 2012). 이러한 부조화와 질풍노도의 시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우리 현실은 성적위주 입시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답답한 환경만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뷰 대상자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에는 대부분 중학교시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모범생이거나 딸아이, 순한 아이도 중학교 시기에는 변한다(C-1, E-2, E-3, E-4, E-5)고 할 정도로 중학교시기 반항이 절정에 달해 부모들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저도 중1, 중2 때 우리말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 전에는 엄마말이 거의 지존이잖아요. 이렇게 해 그러면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고... 또 내가 바뀌어야되더라고요.(E-2)

아들이 많이 암전한 편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내재된 분노가 있었나봐요... 분명히 주변에서도 다 온순하고 했던 아들이 분노표출을 해서 친구랑 똥통 싸웠더라고요...나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전화만 오면 겁났어요.. 다 불러갔는데, 애들이 자세라도 다소곳하게 있으면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저게 문제가 있구나(E-5).

자녀가 중학교 시기를 이미 지난 학부모들의 경우, 이 시기가 지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H-2), 큰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D-5, E-4)고 말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청소년시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거치는 발달적 과정임을 인식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되면 욕도 좀 잦아지는 거 같아요. 자체가 조절이 되고.. 그니까 중학교때까지는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중학교 때는, 의식적으로도 하는 것 아닌가.. 일부러.. 애들한테 세계 보이고..(E-5)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중학교때는 뭐 허구한날 여기서 붙고 저기서 붙고 정신이 없대요. 툭툭 거린다는 거죠...근데 고등학교대는 그 얘기를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스스로들 피해간대요. 만약 재하고 별로 안 맞으며, 벌써 자기네들이 친구할 애들을 딱 구분해두고 아니다 싶은 애들은 스스로 버리고, 또 개네들은 개네들까지 친하고 그러니까 투닥거릴 일이 별로 없게....(D-5)

2. 부모 차원의 문제

부모 차원의 문제로는 무서운 엄마들 문화와 엄마들의 불안, 가정 내 아버지 부재와 아버지 소외, 자녀와 소통 및 유

대감 부족,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자녀에 대한 그릇된 기대 등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교육활동은 엄마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간다(Lee, D., 2007). 그런데 자녀교육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엄마들의 문화가 인성교육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부모인터뷰에서도 자기 아이만을 생각하는 엄마들,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엄마들, 소수그룹을 만들어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하는 엄마들의 사례를 보고하는 경우(A-3, E-2, F-2, F-5, K-1)가 많았고, 이러한 엄마들의 문화가 자녀의 인성교육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엄마들은 우리아이만 잘해야 되고 자기 아이들의 일에 열렬하고 그래서 어른싸움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내가 최고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는 다 막아주고 이런 일들이 비밀비재하니까 그게 폭력을 부르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보다는 엄마들이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자기에 반장 안되면 왜 우리에게 반장 안시켰나고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요즘 엄마들이 자기에만 봐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의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큰 애 때만 해도 나이가 좀 많은 언니가 계시면 언니라고 이야기 하면서 깍듯하게 대접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냥 일대일이에요. 개인이에요. 자기네들 이익에 맞지 않는 엄마는 완전히 배제시켜 버려요(A-3)

요즘 엄마들은 딱 그룹을 만들어요, 엄마들이. 그 아이들만 뭐 과외를 시키고 요 아이들만 계속 무슨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딱 팀을 묶어서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이거는 우리만의 무엇.. 우리만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너네들하고 조금 달라. 그런 의식에 어렸을 때부터 조금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보다 조금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E-2)

내 아이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성향은 무서운 엄마들의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자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뻘뻘해진 모성애를 그린 영화(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가 나올 정도로 엄마들의 문화는 무섭다. 그런데 무서운 엄마들의 문화는 자녀에 대한 엄마들의 불안감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무지와 지나친 관심이 엄마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서운 엄마들의 문화 이면에는 가정 내 아버지역할 부재가 존재한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성적이 매달리는 동안 아버지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기계로 전락해 아버지 역할을 잊은 지 오래된 모습이다. 전통사회에서 가장으로서 가정의 규범과 규칙을 정하던 아버지들은 현대사회에서 그 역할을 상실하고 가정에서 설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뷰 사례에서도 많은 아버지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거나(C-3), 일찍 귀가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C-6), 자녀들과는 대화가 거의 없고(J-4), 자녀교육은 대부분 부인이 알아서 하고 부인을 통해서 전해 듣는 식(H-1, H-3)으로 아버지 역할 부재의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일찍 퇴근해도 귀가하지 않는 아버지들의 문화를 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K-1).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이 '술 한잔 하는 날'로 변질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는 직장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익숙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들이 퇴근 후 일찍 귀가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에서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귀가하지 않는 대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이 곧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자위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아버지 모습이에요. 아버지들은 일찍 귀가해서도 가족과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더 바깥으로 도는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찍 귀가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는 가정의 날이 있지만 가정의 날이 정시퇴근해서 술 한 잔 하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고, 모든 아버지들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자녀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릅니다.(K-1)

아버지연구에 관심이 많은 한 아버지는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영역이고 어머니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부재하고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간혹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질 경우 부부간 갈등이 생겨 부부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지금처럼 엄마들이 당신은 돈이나 많이 벌어요지, 또 엄마들이 아빠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내 영역인데 왜 들어오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어머니 영역이라고 여겨졌

던 자녀양육에 아버지가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갈등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교육의 핵심은 아버지가 자녀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반인데 현재는 아버지라는 존재의 의식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죠..(K-2)

한편 부모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청소년기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재할 뿐 아니라 자기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그릇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부모를 고민을 나누는 대화상대로 생각하지 않아 50%이상이 자신의 고민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거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9).

자기 자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려면 옆집 엄마한테 물어봐야 더 잘 안다는 학부모(E-2)도 있을 정도로 자녀의 생활에 대해 무지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한 딱 막힌 아버지의 사례(E-4)나 아이들의 성문화를 따라가지 못한 어머니의 사례(E-5)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문화격차를 찾아볼 수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부모는 남의 자식은 전부 다 담배 피고 나쁜 짓 다 해도, 내 자식은 절대 아닙니다.. 내 자식만큼은 절대 야동을 안 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옆집엄마한테는 내 아이가 남의 자식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밖에서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도 100%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나마 우리 아이의 바깥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엄마들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친구를...(E-2)

또한 대부분의 부모가 저지르기 쉬운 오류중 하나가 자기 자녀에 대해 그릇된 기대와 욕심을 가지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 지나친 사교육을 시키는 경우(D-3)가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또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엄마 욕심으로 자녀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녀와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는 사례(A-5)도 있다.

100만원을 벌면, 70만원은 아이를 위해서 썼어요. 그랬는데, 제가 좋은 부모되기 교실을 다녔어요. 애를 얼마나.. 애가 그릇이 진짜 좋지 그릇인데, 대접을 만들려고.. (웃음) 진짜.. 우리 아이 그릇은 종지밖에 안 되는데 대접을 만들기 위해서 5살부터 유치원을 보내서 뽕뽕이를 돌리는거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안 가르쳐 본

게 없어요. 일등한다는 애가 어디 다닌다고 하면 내새끼도 일등 할 줄 알고 거기 보낸거야.. 안해 본 게 없어요.(D-3)

3. 학교교육 차원의 문제

가정 내 인성교육 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먼저 손꼽는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학교와의 소통 부재, 교사들의 무관심등 학교교육환경의 문제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가정 내 인성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에 의하면 인성형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학생과 학부모는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을 최우선으로 꼽았던 것(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공부가 가장 큰 원인이예요. 애가 중2인데 공부를 잘하는 반에 모여 있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더라구요. 담임선생님이 성적 순위도 알려주고 하나까... 아이들이 서열화된다는 것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때는 사교육도 별로 없었고, 잘하면 따라잡을 수도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웬만큼 노력을 해도 안되요. 그리고 학교도 직장이니깐 실적이 중요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따 감싸고 갈수가 없는 거죠. 인성보다는 학년에서 몇등을 해야지 이게 더 중요하니까....(J-4)

더불어 살아가는 소양이랄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더불어 사는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성이 결핍돼 있는 거 아니냐....근데 우리 교육의 목적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한, 돈 많이 주는 데 취직하는 거, 번듯한 집안의 배우자 만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게 되나 보니까, 전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국한 돼 있으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K-1)

한편 학교와의 소통부재가 학교차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우리나라 학교에서 선생님과 소통이 잘 안되어 당황했던 고충(C-3)을 털어 놓았다. 또한 권위적인 태도를 가진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으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제안하는 학부모(A-3)도 있었다.

잠깐 외국에서 산적이 있는데 정말 한국이랑 달랐던 게 외국은 학교와 부모의 의사소통이 정확히 되었는데, 시스템 자체가 처음 애가 중학생이 돼서 왔는데 완전히

전쟁터에 뛰어들 거였어요. 처음 초등학교 1년 보내고 외국 갔으니까 저는 이정도로 중학교가 심각한지 몰랐었어요. 더 깜짝 놀란 것은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정말 몸싸움이 많아요. 학교에서 별의 별일이 있어도 부모가 오지 않아요. 제가 와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저는 흥분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담임선생님하고 연락을 해서 애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선생님도 상황을 전혀 모르고 새로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어요...(C-3)

저는 부모는 부모들끼리 교육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따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생님들 중에 권위의식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A-3)

마지막으로 학교교육 차원의 문제로 교사들의 무관심이 거론되었다.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무관심한 교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분노하는 학부모(D-6)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모와 소통하면서 자녀교육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애들이 괴롭힌다고 애가 울면서 전화가 오니까 학교로 제가 쫓아갔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그걸 모르고 지하에서 체육을 하고 있더라구요. 선생님들끼리.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D-6)

교사가 그냥 직업인것 같다. 적극적이거나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교사라는 역할만을 하고 자유방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H-2)

4.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로는 TV 등 미디어 환경의 유해성 문제, 군중심리 및 동조심리, 장시간근로문화로 부모의 늦은 귀가 등이 학부모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되었다. 먼저 TV 등 미디어 환경의 유해성이 가정교육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TV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반복적인 사건 사고 보도가 많다는 점(A-4, C-3, D-6)을 청소년 인성교육의 장애요인으로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창 민감한 청소년시기에 TV의 영향력은 성인보다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다가 한국 TV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예민할 때 엄청 빨리 빨리 받아들이요. 그 연령때가 낮아져.. 저희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학교 다니가 싫데요.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했데요. 욕을 너무 많이 하고 때리지 말라고 해도 미디어 흥내내고, 사실 저희가 유럽에 살면서 TV를 보면 유럽 TV는 다 다규. 환경, 이에요. 이렇게 연예인이 많이 나오는 데는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는 것 같아요.(C-3)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인성의 기본이 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인성교육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한 자녀를 둔 학부모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문화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왕따를 당했다(A-4)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아이들의 유치한 동조심리, 군중심리가 왕따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시킨다고 보고 있었다.

요즘 교실에서 나와 다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랑 좀 다르면 다들 뿐이다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안하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책을 읽는다. 그거는 완전 따의 큰 요인이거든요. 본인은 책을 자체가 좋아서 책을 읽는 것 뿐인데 책을 안읽는 아이들이 어 재 재수 없다. 그런식으로 따를 시킨다던가. 그런식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르게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A-4)

가정 내 인성교육의 주체는 부모이다. 그런데 가정 내 부모의 부재는 그 출발을 어렵게 하는 기본적 장애요인이 된다. 사회구조적으로 장시간근로가 만연한 우리나라 기업문화 속에서 일하는 부모가 일찍 귀가하기란 매우 힘들다. OECD(2011) 국가 평균 연간근로시간이 1,775시간인데 반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무려 400여 시간 이상 길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제약 하에서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유재량시간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가족이 함께 모여야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밥상머리교육 캠페인에서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족시간 확보이다(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문제아 뒤에는 문제부모가 있고, 문제부모 뒤에는 장시간근로라는 우리나라의 직장문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들의 늦은 귀가로 방치된 아이들은 거리를 배회하고, 일하느라 바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점점 더 소

원해지고 대화는 단절되어, 가족이 함께하는 경험과 가족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 만한 기본적인 시간조차 마련하기 힘든 실정이다.

근데 그 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른에게 문제가 있다고..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애는 반드시 그 부모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면,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놀이터에서 배회하거나.. 물론 이렇게 가끔 나가서 바람 쐬는 애들도 있지만,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늦은 시간까지 집에 가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집에 가면 심심하거든요. 아이들끼리 뭉쳐있으면 재미있거든요.(D-6)

이상에서 학부모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가정 내 인성교육의 어려움을 청소년차원, 부모차원, 학교교육차원, 사회문화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앞서 인간생태학적 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으로서 가정이 일차적인 역할을 하고, 학교와 사회, 문화가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서 영향을 미친다. 가정교육의 어려움 또한 인간생태학적 접근에 의거하여 청소년, 부모(가정), 학교, 사회문화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V. 가정과 부모의 역할 지원 방안 탐색

앞서 분석한 가정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학부모인식을 토대로 가정 내 인성교육 회복을 위한 가정과 부모 역할 지원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청소년의 성장환경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고, 이들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갈 때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가정, 학교, 사회 차원에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지원방안을 다음 <Table 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정 차원

가정차원에서의 부모역할 지원은 가정 내 인성교육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건강한 부모상을 정립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 때, 자연스럽게 가정 내 인성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지원의 방안은 부모교육활성화와 부모네트워크 형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부모교육과 부모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는 학부모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거의 모든 학부모들에게서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인

Table 3. Parent support Methods in Family-School-society

Dimension	Parent support methods in family-school-society
Family	(1) Encouragement of Parental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parental education completion system according to school level ② diversification of parental education channel ③ development of parental education program
	(2) Network of Par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region-oriented network of parents ② development of activists within the parents' network ③ organization of fathers' network
School	(1) Change of Paradigm in School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paradigm shift from test-oriented education policy ② encouragement of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 ③ intensification of character education for teachers
	(2) Character Education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parental education within formal school curriculum ② strengthening of character education for the lower grades ③ emotional education through music, art, physical education
Society	(1) Securing of Family T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encouragement of family day ② family friendly company culture ③ family friendly school culture
	(2) Movement of Character Restoration in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improvement of TV, Internet, Media culture, ② improvement of language culture ③ establishment of community value movement

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고, 심지어 ‘부모면허증’(E-3)이나 ‘부모교육의무화’(F-4), ‘예비부모교육’(A-2)를 제기할 정도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공감대는 매우 강하게 드러났다. 그만큼 가정 내 부모역할 지원을 위해 부모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부모교육의 방법으로는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A-3), 초등학교 학부모교육 필수화(D-4), 학령기 단계별 부모교육의무화와 지역사회중심의 부모교육활성화(K-2)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 학부모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동의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부모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부모교육의 방식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교육 뿐 아니라, 선배부모들에게 경험담을 듣는 방식의 부모교육네트워크(F-3, E-3)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녀들의 문제가 발달과정상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자녀를 키워본 선배 부모들의 경험을 통해 듣거나 상담함으로써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또래문화의 압력, 아이들의 심리, 사회환경의 변화, 장기적인 진로 등 부모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소규모 집단 내 소통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끼리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역할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제안한 부모네트워크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아버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왔다. 가족에서 아버지 자리를 찾기 위한 의식개혁에서부터 대화 스킬이나 주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K-2)이 아버지로부터 제기되었다. 어머니들도 아버지와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자녀교육관을 수립하는데 아버지교육이 필요(F-4)하다고 하였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F-4), 온라인 아버지 교육이나 아버지부모교육 홈페이지 운영(F-2)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가정 차원에서 부모역할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부모교육 활성화와 부모네트워크 형성의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부모교육 활성화

우선 부모교육활성화는 앞서 학부모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이 연구에서는 부모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학령단계별 부모교육이수제, 부모교육채널 다양화, 새로운 방식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모색해보았다.

① 학교급별 부모교육이수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정립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도모하기 위해서 학령단계별 부모교육이 필수적이다. 자녀의 발달 단계별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부모교육이수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Lee, Chang, & Park(2011)의 연구에서도 학교전환기 자녀와 함께 부모가 무엇을 준비하고 학교와 가정이 상호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시기는 학기초 학부모총회나 학부모상담주간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학령기가 시작하는 학기초에 ‘학부모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모든 학부모가 학교급에 맞는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부모교육 채널 다양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맞벌이가구의 증가, 생활양식의 다양화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모든 학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의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기 힘든 경우,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도 있도록 하고, 또한 교육장소도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이나 직장에서도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바, 아버지의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데 반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나, 온라인 부모교육, 일과후 부모교육, 지역사회 부모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이 학부모의 수요에 맞춰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③ 새로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건강한 부모상 정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부모교육 내용을 포괄하면서, 부모교육의 방식을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나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방식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부모역할,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위상 정립을 목표로 부모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순한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됨의 의미, 부모의 역할, 가족의 가치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계기로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앞서 학부모들

의 인터뷰에서도 제안된 바 인문학 강좌식 부모교육이나 엄마행복교육 등 새로운 방식의 부모교육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모네트워크 형성

부모교육이 실제 가정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천 조직으로서 부모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핵가족화로 가족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가족의 기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부모역할을 배운 적도 없고 배울 곳도 없는 부모들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고민하는 가족공동체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부모네트워크가 힘이 될 수 있다. 현재 자녀가 속한 학교의 학부모모임이 일부 부모네트워크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무서운 엄마들 문화를 키우는 온상지가 되는 등 오히려 그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모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학교중심이 아닌 지역중심의 부모네트워크 활성화, 부모네트워크 활동가 양성, 아버지 네트워크 조직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① 학교중심이 아닌 지역중심의 부모네트워크 활성화

현재 학부모모임은 주로 자녀가 속한 학교 학급의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자기 자녀가 속한 학교나 교사와의 관계에 의한 불가피한 활동이므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일부 강제적인 측면이 있다. Choi et al.(2011)의 조사에 의하면 '담임교사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20.6%)가 학부모참여를 저해하는 두번째 요인으로 나타날 정도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 실제 학부모 인터뷰를 통해서 핵가족 부모의 취약성을 보완해주는 장치로서 지역중심의 부모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지역중심의 부모네트워크는 동학년 친구들의 학부모 모임이 아니라, 또래나 선후배 등 다양한 연령층의 부모간 모임이므로 지역 내 가족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중심의 부모네트워크는 부모들끼리는 이웃사촌, 자녀들끼리는 동네언니, 동네형을 만들어 서로 경험과 감정을 주고받는 공감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핵가족 내에서는 배우기 힘든 공동체의 협력과 배려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중심의 부모네트워크는 취약한 핵가족 구조를 보완하고 지지해주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까지 할 수 있다

② 부모네트워크 활동가 양성

지역 내 가족공동체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부모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속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활동가가 필요하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리더를 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내에서도

부모네트워크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활동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부모네트워크가 지역중심 조직이므로 활동가도 그 지역에 기반을 둔 부모이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공동체의 이익이 내 자녀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부모네트워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모이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지역 내 부모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아버지 네트워크 조직화

가정은 어머니, 사회는 아버지라는 이분법적인 성역할 분담 속에서 가정 내 자녀교육의 주책임은 어머니에게 주어지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양의 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치부되면서 가정 내 자녀교육에서는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부모로서 학교에 참석하는 것도 주로 어머니 중심, 어머니 중에서도 전업주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로 인식되고 가정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학부모인터뷰에서도 확인한 바, 가정 내 아버지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특히 젊은 부모들에게서 아버지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아버지들 사이에서 아버지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찾고, 아버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으로서 아버지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아버지 네트워크는 일반 부모네트워크와는 그 목적에서 차별화된다. 일반 부모네트워크가 가족공동체적 기능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 아버지네트워크는 산업화 이후 일 중심으로 구조화된 아버지역할을 일가정 양립형으로 새롭게 구조화하여 부모권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버지 생활의 재구조화, 아버지역할의 재발견, 아버지의 부모권 확립이 필요하다.

2) 학교 차원

학부모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학교에서 학생 대상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주로 운동이나 독서, 명상, 다양한 예체능 활동에 대한 요구(A-5, D-1)로 드러났다. 운동이나 예체능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고, 서로 협동하는 사회성이 키워지며,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나 배려심도 함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독서나 명상, 인문학 강좌를 고정적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방식으로는 프로젝트 방식의 교과연계방식(C-3), 역할극이나 봉

사활동(H-4) 등으로 다양하게 제안하였다. 다양한 교과에서 인성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들어가게 하는 주제방식이나 역할극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는 방식,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는 방식 등이 효과적인 인성 교육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차원에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기본적인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과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인성교육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① 입시위주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그동안 학교교육은 인성보다는 성적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성적위주,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은 인성교육의 가장 주요한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학부모들의 인터뷰에서도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때문에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호소가 많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 소홀의 결과는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 끔찍한 방향으로 드러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Mun(2012)은 미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초중고시절의 행복은 유예하면서 공부에 전념해야한다'는 전통적 교육관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긍정심리학의 교육관, 즉 행복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능력인 인성이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미래 사회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으면서, 기존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 개편내용은 체, 덕, 지의 전인적 성장을 기반으로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함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개선하였고, 국어와 도덕, 사회 교과의 학습내용을 지식전달 중심에서 체험 및 실천 중심으로 보완하였고, 체육, 예술 교과목의 기준 수업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중학교스포츠 클럽 활동을 학년별로 연간 34~68시간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이러한 노력을 시작으로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인성함양에 두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학교의 인성교육 역할 증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바, 학교의 인성교육의 기능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Choi et al.(2011)의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인성 및 사회성 지도'(40.7%)가 '주지 교과 학습'(21.5%)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들

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도와야 하고, 이것이 가정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하여 학교와 가정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의 인성교육 역할 증대로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인성함양'이 되어야 한다.

③ 교사의 인성교육 강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역할 모델로 중요한 존재이듯,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이다.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인성교육 위주로 전환하고,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사선발 과정에 인성요소를 반영하고, 연수 등 재교육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교사평가에 있어서도 인성요소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성교육 환경으로써 교사와 학부모가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요구된다.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성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① 정규 교과 내 부모교육 강화

인식이나 가치는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 교육이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성인보다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에게 더욱 크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가정 내 인성교육의 회복 방안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정규교과를 통해 기본적인 부모됨의 의미와 건강한 부모역할,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가족 간 소통 등 예비부모교육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시위주의 교과과정 편성으로 입시와 상관없는 과목들이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학교의 인성교육의 현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 부모가 되는 아이들이 배려와 협력, 사랑과 희생, 소통과 같은 건강한 가족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실과나 가정 등 정규교과에서 이와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후 부모가 되고 나서 여러 차례 부모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가정 교과는 일상생활의 장에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를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최선의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학습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실천교과라는 점(Lee et al., 2012)에서 부모교육 뿐 아니라 인성교육을 실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과

라 생각된다.

② 저학년 중심의 체험형 인성교육 강화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체험형이나 프로젝트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인성교육은 추상성 수준이 높은 가치를 다루는 내용이므로 자칫 지루하고 따분한 교육이 되기 쉽다. 체험형 교수법이나 프로젝트형 교수법 등 다양한 형식의 교수방법을 고안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인성함양을 자연스럽게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인터뷰를 통해서도 프로젝트형 수업, 교과연계 수업, 운동이나 독서프로그램, 기본예절교육, 인문학강의, 명상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성교육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특히 가치형성의 초기단계인 저학년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저학년 중심의 체험형 인성교육을 제안하는 바이다. 캐나다의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Mary Gorden, 2009)은 지역에 사는 갓난아기를 초·중등학교에 초대해 아이들로 하여금 한 학년 동안 성장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는 ‘공감 능력을 높이는 심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캐나다 전역에서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현상이 90퍼센트나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으며, 공감 능력의 발달과 함께 학습 능력도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온 바 있다.

③ 예체능교육 확대를 통한 감성문화교육

예체능교육은 청소년의 감성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앞서 학부모 인터뷰에서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요구가 특히 남자아이들 둔 학부모에게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인성요소를 익힐 수 있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최근 주5일 수업제 실시 이후 토요일을 스포츠데이로 운영하는 등 체육활동의 기회가 증가하기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모든 학생들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수업이나 방과후활동 등에서 예술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수성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공감능력의 기본이 될 것이다. ‘1인1기’ 제도를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예술 활동에 적어도 한가지씩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3) 사회문화 차원

인간생태학적 접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일차적인 성장환경으로서 부모와 가정이 있고, 이를 둘러싼 미시체계로서 학교가 존재한다. 또한 가정, 학교, 기업, 사회 등의 행동양식은 거시체계의 가치 및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시체계로서 사회문화적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거시적 차원의 사회구조와 사회문화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부모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 사회문화 차원의 지원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한다. 학부모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장시간근로문화, TV 등 미디어환경, 청소년놀이문화 및 욕설문화 등이 가정 내 인성교육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거시적 환경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정 내 인성교육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시적 규범과 가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시간확보와 범사회적 인성회복운동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문화 차원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족시간확보는 부모권 보장의 일차적인 조건이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범사회적 인성회복운동은 인성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환경이나 언어문화 개선, 가치 정립 등 가정교육의 거시적 환경을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다.

(1) 가족시간 확보 방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은 유명하다. 2010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 근로시간인 1,749시간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400시간 이상 길다(OECD, 2011). 이러한 장시간노동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가족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가족시간확보는 일 중심 생활패턴을 일가정 양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가족시간확보를 통해 일중심의 사회에서 가족중심의 사회로 생활패턴을 전환하는 것이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의 근간이 된다.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함께 부모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가족친화적인 사회인 것이다. 부모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가 학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가족친화적인 사회이자 학부모친화적인 사회인 것이다(Lee, 2012). 즉, 가족시간확보는 근로자들의 부모권 확보를 위한 일차적인 선결조건이다.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들에게 노동권과 부모권이 동시에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 두 가지 기본권이 균형 있게 충족될 때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족시간 확보방안으로 가족사랑의 날 실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가족친화적인 학원문화 조성을 제안한다.

① 가족사랑의 날 실천

정부는 2011년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범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뿐 아니라 매주 금요일까지 정시에 퇴근하는 ‘가족사랑의 날’이 실천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가족시간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족간 애정을 나누고, 가정교육을 통해 인성을 키우고,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이다. 근로자들의 부모권을 보장하고, 우리사회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실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캠페인과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한 이면에는 장시간노동을 통한 근로자들의 희생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는 OECD 회원국으로서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고 선진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될 때 선진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는 장시간노동근절 뿐 아니라 회식문화 개선도 동반될 때 달성된다. 학부모 인터뷰 중 아버지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찍 퇴근하고도 집으로 향하지 않고 회식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아버지들의 문화가 문제다. 가정에서 아버지 자리를 찾고 아버지 역할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버지교육,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제도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현재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008년 14개 기업으로 시작하여 2012년 101개 기업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정도로 늘어나, 그동안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총 253개에 달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2b).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의 영역에서 가족친화기업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 가족친화우수기업 정부포상,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또는 우선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신문광고나 우수사례집 배포 등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지원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초기에 비해 인증기업수가 증가하고 인지도가 다소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많은 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③ 가족친화적인 학원문화 조성

가족시간 확보의 또 하나의 장애요인은 학생들의 야간수업이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 보다 더 바쁜 일정으로 학원을 순례하는 것이 일상적이며, 이런 학습풍토가 가족시간 확보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른들에게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일찍 귀가하게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적어도 매주 수요일 저녁은 야간수업을 없애고, 학원 안가는 날로 지정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교육청별로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의 경우, 야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Ok et al., 2012). 학원시간제한은 학원업체의 저항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으로 부모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 범사회적 인성회복 운동

앞서 제시한 가족시간확보 방안은 우리사회의 일 중심적 사회구조를 일가정균형적 사회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조적 전제 조건이라 한다면, 범사회적 인성회복운동은 그러한 구조적 전환을 통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정립하고 그러한 가치가 사회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 가정차원이 아닌 범사회적 차원에서 ‘인성’을 우리사회의 근본 가치로 정립해야 가정 내 인성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범사회적 인성회복 운동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언어문화’ 영역이다. 앞서 학부모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난 바, 청소년의 욕설문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TV, 인터넷 등 미디어환경이 유해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또한 범사회적 인성회복운동이 필요한 영역이다. 미디어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TV나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범사회적 인성회복운동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선과 공동체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까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① 욕설 등 언어문화 개선

최근 청소년 사회에서 욕설, 은어, 비속어 사용이 일반화되고, 올바른 경어사용 등 언어예절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언어문화는 청소년의 인성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언어는 말하는 이의 인성을 들여다보게 하는 가장 좋은 완성물이다. 언어는 의식적인 발화에 의해 생성되

는 것이지만, 무의식적인 본능, 기질, 습관들이 합세하여 언어의 특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성문제를 먼저 성찰할 필요가 있다(Kim, 2005)는 점을 고려하면, 언어 사용과 인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와 방송 등 각종 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욕설문화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국립국어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생의 97%, 중고등학교생의 99%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급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하는 비속어 목록이 많아지고 거친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1). 앞서 본 연구의 학부모 인터뷰를 통해서도 청소년 욕설문화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기 방어적으로 욕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암묵적인 또래문화의 압력을 호소하고 있었다. 암묵적인 또래문화의 압력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건전한 언어사용 문화를 조성할 때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범사회적 차원의 언어순화 캠페인이나 미디어의 언어심의, 언어사용모니터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부부 간에 상호 경어를 사용하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경어 사용을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② TV, 인터넷 등 미디어환경 개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부모나 교사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디어를 통해 손쉽게 정보와 경험을 제공받고, 사상과 가치를 전달받는다는 점에서 TV나 인터넷 등 미디어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인성함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미디어 환경이 건전해야 한다. 앞서 학부모 인터뷰 속에서도 TV와 인터넷의 유해성에 대한 불만이 크게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인터넷 환경의 급속히 개선되면서 전통적인 미디어인 TV나 라디오에 비해, 인터넷,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미디어인 TV나 라디오 뿐 아니라 인터넷 등 뉴미디어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최근 인터넷게임중독에 의한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 인터넷게임접속을 제한하는 일명 ‘셋다운제’를 도입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온라인 게임접속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는 ‘쿨링오프제’를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TV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할당제를 도입, 아동청소년 시청가능 시간대를 지정 등 기본적 규제가 필요하다. 하

지만 규제만으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디어 관련 업체들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들의 미디어선택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을 미디어산업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스스로 선택하고 적절히 조절하고, 그 영향까지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③ 공동체가치 정립 운동

가정 내 인성교육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속한 사회가 함께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기본이 되어야한다. 즉, 가정 내 인성회복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의 전형, 새로운 부모역할의 원형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일 중심에서 벗어나 가족 중심으로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배려와 협동, 절제와 책임과 같은 기본적인 인성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공동체적 가치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사회 공동체가치로 자리잡게 하느냐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사회적 어른들의 숭선수범(노블리스 오블리제)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적 어른들이 현재 부모들이 지향할 가치의 전형을 제시하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준 좋은 사례로 최근 조선일보와 여성가족부, 생활개혁실천협의회가 펼치는 ‘1000명의 작은 결혼식 릴레이 약속’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캠페인 시작과 함께 정부의 장·차관과 고위공직자 등이 동참하고, 평범한 중산층·서민층 혼주와 남녀 직장인들은 물론 대학교수·금융기관 CEO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겸소한 결혼식을 실천에 동참한 바 있다. 이처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숭선수범은 공동체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도해가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일차적인 환경으로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에 주목하고,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이를 둘러싼 미시적, 거시적 환경을 살펴보고, 가정내 인성교육 회복을 위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 지원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우선 학부모 집단면접조사 결과, 가정교육의 어려움은 아

동청소년 차원, 부모차원, 학교교육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차원의 문제로 빈곤한 청소년 놀이문화, 욕설사용이 보편화된 또래문화, 발달단계상 특성(중학교시기 절정 반항기) 등이 발견되었고, 부모차원의 문제로 무서운 엄마들 문화와 불안감, 가정 내 아버지 부재, 청소년자녀에 대한 이해 부재와 자녀에 대한 그릇된 기대 등이 발견되었다. 학교교육차원의 문제로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 학교와의 소통 부재, 교사의 무관심 등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TV 미디어 환경의 유해성, 군중심리, 장시간근로문화로 인한 부모의 늦은 귀가 등이 가정교육의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가정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학부모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가정 내 인성교육 회복을 위한 가정과 부모 역할 지원방안을 가정, 학교, 사회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가정 차원에서의 부모역할 지원은 가정 내 인성교육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 부모교육활성화(학교급별 부모교육 이수제, 부모교육채널 다양화, 새로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와 부모네트워크 형성(지역중심 부모네트워크 활성화, 부모네트워크 활동가 양성, 아버지 네트워크 조직화)의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학교차원에서의 부모의 역할지원을 지원 방안은 기본적인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입시위주 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 학교의 인성교육 역할증대, 교사의 인성교육 강화)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강화(정규교과 내 부모교육 강화, 저학년중심의 체험형 인성교육 강화, 예체능교육 확대를 통한 감성순화교육)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둘러싼 거시체계로서 사회 규범과 가치, 문화의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회차원에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시간확보(가족사랑의 날 실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가족친화적 학원문화 조성)와 범사회적 인성회복운동(욕설 등 언어문화 개선, TV, 인터넷 등 미디어환경 개선, 공동체가치 정립 운동)의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정-학교-사회 차원의 정책 방안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고 부모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정책들이다. 부모들이 역량을 갖추고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구조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변화와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가정-학교-사회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가정교육의 어려움을 청소년, 부모, 학교교육, 사회문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 지원방안을 가정과 학교,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태학적으로 조망해 보았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실제 학부모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가정과 부모의 역할 지원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수요자 지향적 정책 수립의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 지원방안은 가정-학교-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으로써 각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한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 도출의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Bae, J. & Lee, M.(1988). *The Reality of Korean education*. Seoul: Kyoyookbook.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2012). *Family meal education manual*.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Choi, S., Kim, H., & Jeon, S.(2011). *A study on children's education and school engagement of par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im, B.(2012). Resolution of school violence: Brain development and emotional compathy capacity improvement of the adolescent. 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7th Forum sourcebook.
- Kim, K., An, S., Jang, S., Kim, M., & Choi, D.(2009). *A cross-national comparison study on life pattern of children and youth*.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im, M.(2005). *Human and language: Between instinct and capacity*. Seoul: Pagijong Press.
- Lee, D.(2007). *A study on parents culture: Focusing on a support to children's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Lee, H. A.(2012). Necessity and method of linkage between family policy and parents support polic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5), 149-161.
- Lee, J.(2004). *New educational sociology introduction*, Seoul: Dongmunsa.

- Lee, S. M., Chang, Y. E., Park, J. Y.(2011). A study on effective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character education through family-school partnership: Based on parents' satisfaction and nee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4), 35-47.
- Lee, Y. et al.(2012). Home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52th Fall Conference sourcebook, 39-63.
- Lickona, T.(2004). *Character matters: how to help our children develop good judgment, integrity, and other essential virtues*. NY: Simon and Schuster. Yu, B. et al. translation(2006). *Reality of character education*. Seoul: Yangseowon.
- Mary Gorden(2009). *Roots of empathy: Changing the world child by child*. NY: The Experiment. Mun, H. translation(2010). *Roots of empathy*. Seoul: Shanti.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2012). *Character Education Survey*.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12a). *2011 Youth Life in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12b). *2012 Best Family Friendly Management casebook*.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11). *2010 International Survey Youth's Valu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Mun, Y.(2012). Now we need a happiness education with parents. 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st Forum sourcebook.
- Munhwailbo(2009). Obama "Learn Korean education fever". 2009.03.11.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 *2011 Internet Addiction Surve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09). *Youth Key Competency Surve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0). *Youth Key Competency Surve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OECD(2006). *Society at a glance*.
- OECD(2011). *Average annual working time*.
- Ok, S., Chin, M., Lee, M., Seo, H., Park, H., Jung, H., & Cha, S.(2012). *Policy study on engagement of family and society for character education of child and youth*.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Park, J.(2012). Character education and home education.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52th Fall Conference sourcebook, 3-14.
- Park, Y.(2012). Korean relationship of parents-children: The effects on study and happiness of youth. 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st Conference sourcebook.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2011). *Korean Teenager's Language Use and Attitude Surve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Yonsei University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Institute.(2010). *Result report about Korean children and youth happiness index and a cross-national comparison study*. Yonsei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 접수 일 : 2013년 05월 15일

□ 심사 일 : 2013년 06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7월 24일